

“동성동거관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인정 판결, 입법권 침탈”

복음법률가회, 성명 통해 판결 재고 촉구

복음법률가회가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동성 간 동거관계를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인정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복음법률가회는 성명에서 “우리는 헌법 36조상 양성애에 기반하도록 명시된 혼인관계를 확대하려는 사법부의 시도에 대해 입법권 침탈에 깊이 우려하면서 동성동거관계를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로 인한 사

법권 남용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소3-2부는 지난 5일, 동성 간 동거관계를 “혼인 의사로 결합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로 규정하고, 해당 관계 파탄에 제3자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복음법률가회는 이번 판결이 “헌법과 민법의 명문(明文)을 넘어선 사법적 입법이자 우리 사회의 가족제도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첫 번째 문제점으로 사법권의 한계 일탈을 지적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이 ‘양성(兩性)

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함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민법상 혼인과 사실혼은 모두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며 “그럼에도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라는 법에 없는 새로운 범주를 창설하여 사실혼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를 부여한 것은, 법을 해석적용해야 할 법원이 사실상 입법자의 자리에 올라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무엇이 보호받는 ‘생활공동체인지’에 대한 기준 또한 모호하여, 결국 개별 재판부의 가치판단에 따라 법적 권리의 무의 범위가 좌우되는 법적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복음법률가회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동성혼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들은 “혼인의 정의를 변경하고 동성결합을 법적 가족으로 승인하는 일은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회적 결단”이라며 “법원이 개별 손해배상 사건을 빌미로 동성결합에 혼인에 준하는 효력을 점진적으로 부여한다면,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결정을 우회하여 사법부가 사회의 기본질서를 재편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지기 쉬운 동성결합을 자발적으로 형성했던 성인을 보호하겠다고 생할공동체 개념을 확대하는 결과 사법

부는 가족내 최약자 자녀 입장은 배제할 것”이라며 “이를 정당한 판단이라 할 수 있는가? 이념에 사로잡혀 자녀의 복리를 도의시한 편향적 판단”이라고 했다.

혼인가족 제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복음법률가회는 “혼인과 가족은 자연적 출산과 양육을 통해 공동체를 다음 세대로 이어 온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라며 “동성결합이 확대되면 혼인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출산과 양육의 든든한 배경인 혼인이 약화되면 출산율도 감소하게 되는 것이 서구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은 헌법상 보호대상

인 혼인 범위를 위헌적으로 확대하는 사법권 일탈이자 망국적인 동성혼의 도입의 수순이며 혼인 가족제도의 근간을 뒤 흔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복음법률가회는 끝으로 “법의 해석 기구인 사법부가 대한민국 어떤 법에도 없는 생활공동체 개념을 도입하려는 시도에 재고를 촉구한다”며 “혼인, 가족제도에 대한 변경 시도는 우리의 미래와 사회의 근간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충분한 공론 및 입법을 통해 다루어져야 할 문제임을 사법부에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아시아복음연맹, ‘제자 양성 7대 실천 과제’ 발표… 기독교 선교 패러다임 전환

마닐라 ACCM 2026 성료… 단순한 개념 논의에서 벗어나 국가 연맹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단계 돌입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026 아시아 교회 및 선교 대회(ACCM)가 막을 내린 가운데 아시아복음연맹(AEA)이 아시아 전역의 제자 양성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발표했다고 6월 1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밤방 부디잔도 아시아복음연맹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구축해 온 기독교 제자 양성 논의가 이제 구체적이고 기한이 정해진 실행 단계로 진입했다고 선언했다.

부디잔도 사무총장은 기독교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대회가 아시아 각국의 국가 연맹들로부터 광범위한 공감

대와 헌신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번 마닐라 기독교 선교 대회는 2024년 몽골에서 열린 1차 총회와 2025년 한국에서 열린 2차 포럼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다. 25개국 210명의 기독교 지도자가 모인 이번 행사는 단순한 개념 논의를 넘어선 구체적인 행동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개념 논의 넘어선 구체적 행동 기반 7대 실천 과제 제시

CDI는 과거 두 차례의 대회가 제자 양성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구축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선교대회는 철저한 실무적 이행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폐막 전날 열린 지도자 회의에서 국가 복음주의 연맹 지도자들은 향후 운동의 중추가 될 임무 가지 핵심 실천 과제에 전격 합의했다.

우선 매년 연례 선교대회를 개최해 운동의 동력을 유지하고 각 국가 연맹이 자국 내에서 대규모 영적 비전 제시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 멘토와 가족 제자화 전문가 등을 체계적으로 길러내는 실무형 훈련 프로그램을 2028년까지 10여 개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일선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어 단순한 행사 참석을 넘어 지역 교회가 실질적인 기독교 제자 양성 단계에 진입했는지를 추적하는 측정 시스템을



아시아복음주의연맹 사무총장인 밤방 부디잔도 박사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026 아시아 교회와 선교 콘퍼런스' 한 세션에서 대표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Christian Daily International

도입한다. 아울러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제자 양성 교회 발전 기록(DCAR)이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연맹 간의 고립 없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가 복음주의 연맹 체질 개선 및 지도부 숙련수범 촉구

부디잔도 사무총장은 아시아복음연맹과 지역 교회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국가 복음주의 연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조 높게 주문했다. 국가 연맹이 단순히 위에서 내려온 지침을 아래로 전달하는 관리자나 행정적 조정자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자도의 본질을 내면화하지 않고 정보만 전달하는 방식은 연속적인 변화를 이끌 수 없다고 단언했다. 국가 연맹 지도부 스스로가 주변의 측근부터 제자로 길러내는 숙련수범을 보여야 하며 이러한 실질적인 내면의 변화가 증명될 때 지역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연맹 조직을 행정 기구가 아닌 역동적인 영적 공동체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로 필리핀복음주의교회협의회(PCFCO)를 비롯한 여러 참가 단체가 훈련자 양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회 참석자들은 중앙 집중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각 국가 연맹이 확고한 주인



메트로 마닐라 알라방에서 열린 2026 아시아 교회선교대회 폐막식에서 참가자들이 흰 깃발을 들고 상징적인 다리를 건너고 있다. 각 깃발에는 참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음 해에 제자 양육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서약한 교회나 공동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Christian Daily International

의식을 가지고 기독교 제자 양성 사역을 주도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했다.

◆10만 교회 제자화 비전 및 본질적 교회 회복 촉구

아시아복음연맹은 내년 열리는 연례 선교대회까지 진정한 제자 양성 교회로 거듭나는 5000개의 교회를 공식 인증한다는 단기 목표를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대륙 전체에서 10만 개의 교회가 이 운동의 디지털 플랫폼과 자원을 활용해 영적 부흥을 이루어 낸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부디잔도 사무총장은 단순한 수치적 성장을 넘어 교회의 건강성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가정의 건강이 교회의 건강으로

직결되고 이는 다시 국가 복음주의 연맹의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각 국가 연맹이 지역 교회를 본래의 창조 목적이자 제자 양성의 핵심 진원지로 되돌려 놓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알라방에서 진행된 이번 ACCM 2026은 아시아복음연맹과 필리핀복음주의교회협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개최됐다. 본 선교대회 종료 직후인 6월 12일에는 약 800명의 필리핀 현지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합류한 국제 제자 양성 콘퍼런스가 열려 지역 교회 현장에서의 제자도 실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최승연 기자

-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심과 회복-충만’을 >> 2면
- 한국교회 회개기도성회 개최… “다시 성령으로” >> 3면
- 2026 그레이트 커미션 선교대회, 황성에서 개최 >> 22면

사통팔달 강원시대가 시작됩니다.

예타 통과(50분 예상)

1시간 25분

평택 ↔ 제천 ↔ 영월 ↔ 삼척

126.9km 29.9km 70.3km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서해에서 동해까지 2시간대로 가까워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